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18.(수)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첫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

- 18일 SK하이닉스 용인 산단 찾아 반도체 용수 공급 점검, 국정과제 이행 속도전
- 용인·호남권 용수 적기 공급, 국내 초순수 기술 사업화 등 협력 강화 추진
- 국내 초순수 생태계를 육성하는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여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현장 일정으로 11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제시한 '6대 경영 방향' 가운데 주요 과제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을 사장이 직접 현장에서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첫 행보다. 양승조 사장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 용수 적기 공급 및 초순수 국산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단지 조성 현장과 용수 공급 기반 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Fab) 가동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용수 공급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확보 협력 ▲ 초순수 사업 협력 및 국내 기술 사업화 ▲ 기업의 물 분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SK하이닉스의 팹 가동 일정에 맞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단계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댐 다중 수원 확보와 공급망 확충을 통해 하루 106만 톤의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적극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전반에 '물 걱정 없는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인프라인 초순수 분야에서도 SK하이닉스와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초순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했으며 2025년에는 SK하이닉스 청주 M15X 초순수 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원수 공급부터 정수·초순수 생산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물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산 초순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물분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양승조 사장은 지자체·기업·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현안을 신속히 조율해 반도체 용수 공급 등 국가 물관리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춘 용수 공급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의정·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용인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초순수 기술 국산화와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든든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담당 부서	산업용수처 초순수사업부	책임자	부 장	윤수범 (042-629-4348)
		담당자	차 장	오세원 (042-629-435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18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 용수 적기 공급 및 초순수 국산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2. 11월 18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나 용수 적기 공급 및 초순수 국산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3. 11월 18일,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 가운데)이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 현장과 용수 공급 기반 시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